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청년1부

창조주 하나님

1과 · 영원한 언약의 떡 레위기 24:8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2과 ·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1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자

3과 ·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2~4a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4과 · 완전한 창조의 결국 창세기 2:1~2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자

2014
January
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충현의 만나
청년1부

2014
January

창조주 하나님

1과 · **영원한 언약의 떡** 레위기 24:8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2과 ·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1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자

3과 ·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2~4a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4과 · **완전한 창조의 결국** 창세기 2:1~2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자

1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영원한 언약의 떡

초 점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본 문 레위기 24:8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레위기는 이스라엘 선민의 삶 지침서와 같습니다. 특별히 24장은 성소 안 등잔과 진설병의 규례를 적고 있으며, 8절은 안식일마다 새롭게 놓여지는 진설병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레위기에 나타난 규례를 통하여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그에 따른 감사와 헌신을 요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초청장'처럼 다가옵니다.

본문의 안식일은 휴식과 예배 등을 위해 일주일 중 특별히 하루를 구분한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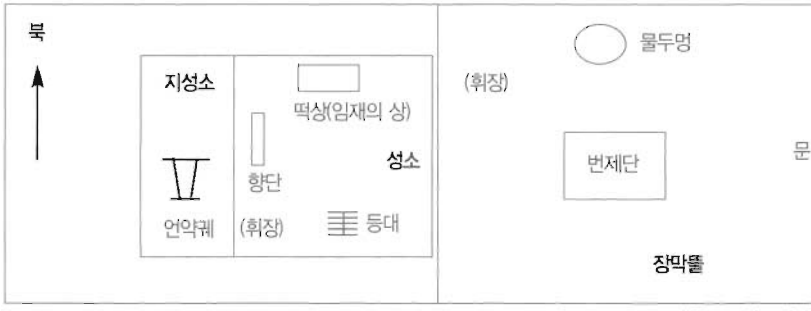
※ 당신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시대의 진설병은 제사장이 성소 안 떡상에 진열하는 떡(고운 가루로 만든 누룩 없는 떡)으로 안식일마다 12개씩 새롭게 바꾸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떡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진설병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은 진설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항상 진설할지니 :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삼아 주시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성막을 지어서 죄를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지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번번히 속죄함을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제사장이 각종 제사 때 제물을 태울 번제단과 제사장의 몸을 씻을 물두멍이 놓여 있는 뜰과 휘장을 경계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향단과 금촛대, 떡상(하나님 임재의 상)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매일 촛대의 불을 정돈하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 12개를 떡상에 놓아야 했습니다.



〈참고 그림 : 성막〉

하나님은 모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차려놓으라고 명령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진설병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자 '거룩한 신앙 행위'로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떡을 보며 하나님의 구속을 늘 기억했습니다.

출 20:8 _____

※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이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 안식일마다 교체되는 진설병은 신선한 말씀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성도들은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세례와 성만찬), 기도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더 자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하신 성만찬을 통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성결과 헌신'을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 아래 그림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모습을 써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시기에만 (X) 형식적 절차만 중요 (X)	VS	인생 매 순간 현장에서 실천으로 믿음이 증명됨

↓

① 예배 ② 죄 고백 ③ 이웃과 화해 ④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나는 하나님과 _____ 교제합니다.

레 11:44 _____

_____

영원한 언약 : 진설병은 누룩(거짓된 것, 변질된 것을 의미)이 없이 덜 부풀려진 떡이었습니다. 외형상으로 볼품이 없고, 식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빵으로서 '순수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식이나 부풀림이 없이 있는 그대로 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인을 의인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의 성소에서 진설병이 끊임없이 드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전인 성도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의 경주를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감격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그가 받은 감동 역시 지속되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지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으로 구원받았던 그 때의 감격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에 따라 기쁨과 감사도 급격히 소멸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 5: 9 _____

_____

※ 세상의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카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통조림 캔은 새로운 캔에 새 식품을 담아야 합니다. 믿음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꼭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패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 16:24 _____

_____

믿음의 기도

① 2014년 제1차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②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소서.
③ 십자가가 구원의 은총임을 기념하는 청년1부가 되게 하소서.

2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초 점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자

본 문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는 세상 창조의 기록과 우주의 근원, 인간 구원과 관련해 그 주체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절은 특별히 '성경의 첫 시작'인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기록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내가 어떤 경로로 선택된 백성이 되었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 또한 '과거의 구속사가 나의 미래에 어떤 확신과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인지'의 적용점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태초에'는 시간의 흐름 중 먼 과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건' 중 하나로 '태초에'는 시간의 출발점 자체,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시초를 가리킵니다.

※ 2014년 여러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창조는 기존 재료로 새로운 형태나 기술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 무에서 유에로의 존재 창조, 즉 전능자 하나님만이 가능한 '완전한 신적 창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지금까지 나에게 창조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창조자와 피조물 :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만드십니다. 천지는 하나님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나 멸망에 간섭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작과 끝도 없이 영원하며,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역사라는 시간도, 세상이라는 공간도 생성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골 1:16 _____

_____

우리는 조물주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그분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위임받은 피조물이자 은혜의 소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신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나를 누가 만드신 것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이라는 개념과 그 존재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분의 계획대로 정해진 때에 알맞은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진화 과정의 무의미한 소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_____

주인과 청지기 :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만으로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청지기(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 일하는 사람)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창조된 인간 본래의 모습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담 부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생과 그에 따르는 존귀한 축복으로 나아갈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들은 창조된 상태에서 발전은커녕 타락의 길로 치닫고 맙니다. 불순종은 인류의 크나 큰 죄입니다.

※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때론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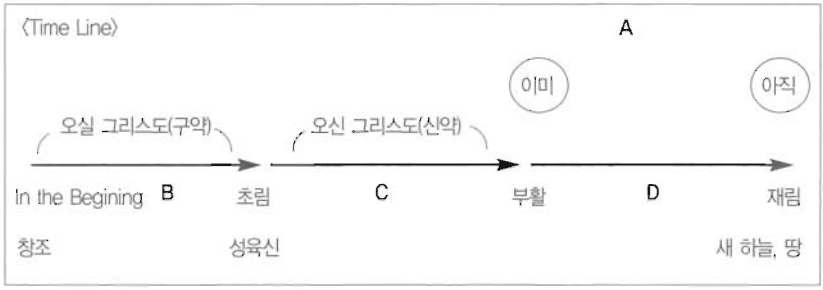
맡은 바 소임이 있는 청지기는 비록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구원에 순종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바른 태도입니다.

눅 1:38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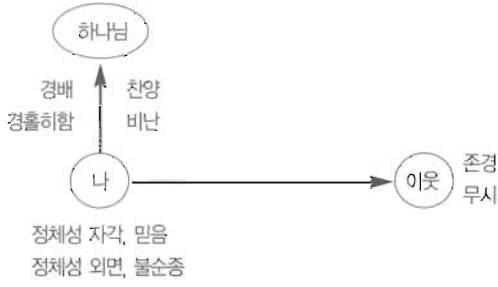
시작과 끝 :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조된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만큼 창조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으로 완성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그의 섭리와 작정에 근거하여 구원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우리는 거대한 구속 사역의 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에 참여자이며 또한 수혜자입니다.

※ 다음 그림에서 당신은 어느 시점(알파벳)에 위치해 있는지 점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이, 절대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독생자로서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인생의 문제와 사회, 인류의 문제를 주께 맡길 때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자신의 소유와 시간, 재능, 목숨까지 바쳐 섬길 수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는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에 맞게 선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참된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전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알고 전도의 열정을 품게 되고 타인에 대한 수용과 존중의식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충성된 자들을 주님은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시 148:5 _____

_____

고전 4:1~2 _____

_____

믿음의 기도

① 새 일들을 행하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③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청년1부 되게 하소서.

3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초 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본 문 창세기 1:2~4a

[2]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어릴 때부터 밤잠을 잊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경험, 더 좋은 것들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더 멋진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삶의 분명한 목표와 삶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운행되고 섭리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소유이며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정교하고도 질서 정연한 우주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온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 어떤 인생을 삶고 싶은지 서로 나눠 보십시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 나를 넘어뜨리거나 세우는 말(정보, 소리)은 무엇입니까?

※ 창조 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창 1:2 _____

만물의 근원 :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창조 전의 상태가 무질서한 혼돈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를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과 생명의 근원인 성령을 가리킵니다.

※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3,6,7,9,11,14~15,24절) 반복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 되니라

※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 33:6,9 _____

시 104:24 _____

렘 10:12 _____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은 오직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생각과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표현한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 실재적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 천지 창조의 순서와 내용은 어떻습니까?

순서	내용	순서	내용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법칙의 근원 :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법칙, 즉 모든 과학 법칙이나 영적인 모든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욥 28:26 _____

골 1:16 _____

※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 1:26~27 _____

창 2:7 _____

※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창 1:28 _____

시 19:1 _____

사 43:21 _____

고전 10:31 _____

인생의 근원 :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작과 끝이시며 삶의 근원이시며 삶의 가치와 목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인생의 본분을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의 형상을 따라 □□의 모양대로 □□가 사람을 만들고

요 1:3 _____

골 1:15,17 _____

_____

만유의 주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병자가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 12:48 _____

고후 5:15 _____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피조물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잊어 버리고 나 스스로 주인 되어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해 나의 결심을 나눠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

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재적으로 믿는 믿음을 주소서.
② 나의 마음, 시간, 물질, 환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용되게 하소서.
③ 우리 팀원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4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완전한 창조의 결국

초 점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자

본 문 창세기 2:1~2

(1)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해도 해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쉬고 싶다. 놀고 싶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싶다'가 소원일 만큼,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고 휴일을 내어 여기저기 다녀오지만 여전히 몸과 마음은 피곤하며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진정한 쉼(休)과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과정을 끝내고 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만든 세상을 둘러보시며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 내가 누리고 싶은 쉼과 안식은 무엇입니까?

∴ 나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피곤합니까?

※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1:4,12,18,21,25,31)

창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

※ '좋다' 는 기준과 의미는 무엇입니까?(4,10,12,18,21,25,31절)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창 1:4 빛이 □□□□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말씀하십니다. '선(善, 히, 토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하나하나의 결과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창조 계획 전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취되어 완전한 세계가 된 것이고, 이 상태를 선(善)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선의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단지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나 부도덕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자신의 행복이 최종 가치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 2:1~2 □□와 □□이 다 □□□□□□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시니라

※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 2:3 _____

하나님의 안식 :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본래 계획하셨던 대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기에 이제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곤하여 쉼이 필요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자신의 창조 결과에 대한 만족을 드러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셨던 바를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매우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는 날'인 동시에 '거룩하게 구별된 복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날에 사람은 인간의 세속적인 활동과 생각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활동과 지혜를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출 20:8 _____

사 58:13 _____

셋째, 하나님의 안식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인간은 쉬지 않고 매일 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신체적 리듬을 가장 잘 아십니다. 6일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과 육의 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 20:10 _____

막 2:27 _____

✧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과 안식일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신 5:15 _____

히 4:8 _____

마 11:28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 :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만족하셨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거룩하며 복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그 완전한 안식일을 이 땅에서 맛보는 시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고 완전하며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간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임시적으로 안식을 누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모형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성령을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죄의 모든 세력이 깨어지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실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 11:28 _____

요 14:27 _____

※ 이번 일주일 나의 스케쥴을 말해 보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나눠 보십시오.

_____

믿음의 기도

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안의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실재적인 삶이 되게 하소서.

③ 충현교회 청년1부가 서로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 세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팀 조 이름:

충현의 **만나** 2014년 1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이경민 이수경 임동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